

록번띠엔 裴雲仙 Tale of Lục Vân Tiên

베트남
1865년
15.0×21.5cm
복제품
팜반루언(Phạm Văn Luận) 기증

『록번띠엔』은 19세기 베트남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6·8체, 2,082행의 푸옌띠놈(truyện thơ Nôm)이다. 푸옌띠놈은 쯔놈(Chữ Nôm, 𣪠喃)으로 쓴 운문 소설을 가리킨다.

작가인 응우옌딩찌에우(Nguyễn Đình Chiểu, 阮廷焄)는 1822년 베트남 남부 자딘(Gia Định, 현재 호찌민시)에서 태어났다. 자는 마인짜이(Mạnh Trạch, 호는 쯔푸 Trọng Phủ 혹은 호이짜이(Hồi Trai)이다. 그는 1843년 자딘성의 항시에 합격하고, 그 지역 부호의 딸과 약혼하였다. 1846년 모친상을 당하여 남부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중병에 걸려 실명하였고, 파혼당했다. 그 후 고향에 도착한 그는 한의학에 공부하고, 서당을 열어 학생을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후 제자의 여동생 레띠엔(Lê Thi Diên)과 혼인했고, 이 시기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1859년 프랑스가 자딘성을 공격했을 때 아내의 고향인 켄주옥(Cần Giuộc)에 피신하였다가, 다시 남부 벤째(Bến Tre)성으로 이주하였다. 벤째성에서 서당을 열어 학생을 가르치며 민중의 애국심과 의병의 사기 진작과 프랑스에 대한 저항 정신을 고무하는 많은 작품을 남겼고, 그는 이곳에서 1888년 사망하였다. 대표 작품으로는 쯔놈으로 창작된 『록번띠엔』과 『조영뜨하머우(Dương Tử Hà Mẫu』, 『간주옥열사제문(Văn tế nghĩa sĩ Cần Giuộc』, 『지에우쯔영딘(Điêu Trương Định)』 등이 있다.

작품 속에 나타난 남주인공의 모친상과 실명, 정혼자와의 파혼, 한의학에 대한 견식 등은 작가의 생애가 투영된 자전적 소설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록번띠엔』 작품 속에 나타나는 유교·불교·도교 사상은 작가의 예술적 재능을 윤리 도덕을 바탕으로 표현한 것이다. 남주인공 록번띠엔, 여주인공 끼에우응우옌응아(Kieu Nguyệt Nga, 어부, 나무꾼, 동자로 묘사된 인물들은 고결한 인품과 지혜와 재능을 대표한다. 또한 그들은 강직하고 비분강개한 성격과 넓은 아량을 가지고 의를 중시하며 위험이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넘기지 않는 의로움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었다.

『록번띠엔』은 57종의 인쇄본이 있으며, 쯔놈·국어·프랑스어 판본이 다양하게 전한다. 2013년 프랑스 파리 도서관에서 120여 년 동안 보관되어 있던 『록번띠엔』의 삽화 초본이 발견되면서 작품의 문학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학계의 주요한 연구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현정

The *Tale of Lục Vân Tiên* is a literary work written in Chunom that represents modern Vietnamese literature of the 19th century. It was authored by Nguyễn Đình Chiểu (1822-1888), whose works strengthened the people's patriotism and inspired the spirit of resistance against France. The death of the hero's mother, loss of his sight, breaking off of an engagement, and insight into Oriental medicine in the work are all based on the author's life.

번역문

591~594행, 남주인공 록번띠엔이 모친상 소식을 듣고 자신의 함을 표현한 문장

누가 보아도 역시 가슴이 아프니,
훤에 보답할 기회를 놓치고 임신의 길을 놓쳤구나.
비록 귀신의 음모 신의 조화라 하더라도,
풍진은 누구나 역시 풍진을 겪어야 한다.

埃乚貼瘵庄傷 (Ai ai trông thấy cũng thương)
呂皮報孝呂皮立身 (Lữ bề báo hiếu, lữ đường lập thân)
埃哈研鬼謀神 (Đầu cho chước quỷ mưu thần)
口塵埃拱口塵如埃 (Phong trần ai cũng phong trần như ai)

